

### 영산강 뱃길 복원, 한반도 대운하와 어떻게 다른가

### “뱃길 복원, 대운하와 차이 없다”

# “물자 수송보다는 수질 개선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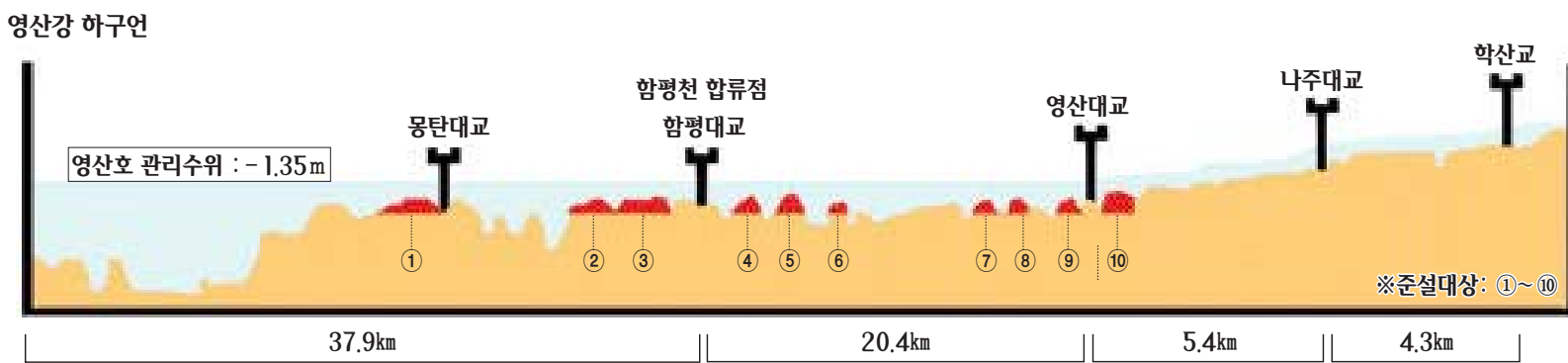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한반도 대운하와의 관련성과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내세우는 반대의 명분이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도 결국엔 한반도 대운하처럼 물류를 위한 운하건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물류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의 한 가운데 서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함께 ‘뱃길복원을 위한 준설 및 정비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질개선과 치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물류를 염두에 둔 대운하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8일 전남도가 발표한 ‘영산강 뱃길복원 개념도(전남도안)’와, 지난 1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호남운하’를 토대로 작성한 개념도(인수위안)와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인수위안에는 갑문(대형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위를 조정하는 장치)이 3개가 있지만, 전남도안에는 이 갑문이 없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물류를 겨냥한 인수위안은 큰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3개의 갑문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단순 뱃길복원이 목표인 전남도안에서는 갑문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18일 발표 영산강 뱃길복원 개념도

### 영산강 - 갑문·하역장 불필요... 환경 파괴 안해

### 대운하 - 큰 선박 통과 위해 3개 갑문 설계 추진

또 다른 차이는 환만시설과 물류화역장이 있는지 여부다. 대형 선박의 통행과 대규모 물류를 위해서는 환만시설과 물류 하역장이 필요하지만, 역시 전남도안에는 이들 시설이 들어 있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준설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황포돛배 크기의 배가 68km의 영산강 뱃길을 갑문 없이 왕래할 수 있다”며 “단순 뱃길 복원이이

서 하역장이나 물류시설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형 선박이 많은 인원과 화물을 싣고 강을 이동하는 한반도 대운하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도.

또 다른 논점은 바로 환경문제다. ‘환경 파괴’ 없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전남도는 갑문이나 보를 만들지 않는 만큼 콘크리트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건설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준설을 하고 제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무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또 조심하더라도, 뱃길복원사업은 필연적으로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준설이 영산강 수질개선과 치수분야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환경단체 반발

영산강 뱃길복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산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일부 환경단체들이 ‘한반도 대운하와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친환경적인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은 ‘박 지사의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의사 천명 기자회견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영산강 뱃길복원은 하천복원과 친환경 사업이 아닌 배 운항을 위한 수로건

설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 대운하 망령을 되살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박 지사가 주장하는 영산강 뱃길복원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영산강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영산강 운하-영산강 뱃길복원 백지화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인 2004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것”이라며 “수질개선과 치수대책을 목표로 한 뱃길복원사업은 물류를 염두에 둔 대운하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국내 최초 영산강 ‘江 등대’ 복원키로

영산강 뱃길을 안내했던 ‘강(江) 등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복원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일본인들이 무안군 일토읍 구정리 앞 영산강 한 복판에 세워지만 상층부가 사라지고 훼손된 등대를 오는 11월 말까지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등대는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48km의 영산강 뱃길을 이용해 수산물과 곡물을 싣는 선박을 안내했지만 1980

년대 목포와 영암을 잇는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되면서 선박 운항이 끊겨 그 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이 등대는 상층부 목재가 부식돼 사라지고 6m 높이의 콘크리트 하부 구조만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상태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등대 복원과 함께 등대 기능이 되살려 역사적 문화적 귀중한 사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성선기자 sslee@



18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도시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해야 일자리 는다”

### ‘亞문화도시...’ 토론회서 노순국 교수 주장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광주의 전략산업으로 채택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순국 호남대학교 문화산업인력사업단 교수는 18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도시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전문인력사업단의 역할과 기여 및 광주문화산업 발전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가 주최하고 광

주지방노동청, 광주시, 광주일보사, 광주시 동구청, 문화도시 협의회가 후원했다.

노 교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테크노 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연관된 광주의 산업체, 교육기관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광주의 교육기관에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 소재 대학에 예술 관련 학과는 많지만 문화 기획과 창작, 마케팅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사실상 없다는 진단이다.

노 교수는 또 “광주의 문화자산인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문화산업창의전 등을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관시켜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시아 문화도시연구회’ 출범식도 열렸다. 아시아문화도시연구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문화쉼터로 변신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옛 전남도의회에 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홍보관’을 광주 금남로 1가 YMCA 옆 전하빌딩으로 이전해 아시아문화쉼터로 새롭게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홍보관은 지난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공식 이후 현재의 홍보관 건물을 철거하고 어린이지식문화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전하게 됐다.

22일부터 임시휴관해 10월 초에 문을 열 홍보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관(3층)과 아시아문화전당관(4층) 2개 층으로 운영되며 판넬,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프로그램 및 특별행사를 기획, 시민들

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홍보관은 도예체험, 한지소품 만들기, 포크아트, 만화애니메이션 교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